

김남훈

Essential 민법 핵심암기장

제8판을 위한 추록

(2023년 03월 29일 기준)



## Essential 민법 핵심암기장 제8판 - 추록

## 내용 추가 및 변경 (2023년 3월 29일 기준)

2023년 3월 24일 발행된 Essential 민법 핵심암기장 제8판에서 추가된(보완) 내용을 정리한 추록을 게재합니다. 교체 및 추가된 부분은 위치란에 표기해 두었습니다.

대법원 2023.3.23.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.

이에 다음과 같이 관련 쟁점의 내용을 수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위치	교체 및 추가사항
p. 373	<div> <p><b>쟁점 247</b></p> <p><b>상속의 포기과 상속권자 ★★★</b></p> <p>甲은 사망 당시 처 乙, 아들 丙과 딸 丁, 부(父) 戊가 있었다. 상속재산으로 10억 원인 X토지, B은행에 대한 채무 3억 원이 있었다. 丙과 丁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, X 토지와 B에 대한 채무는 누가 상속하게 되는지 서술하시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동순위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. 판례가 변경되었으므로, 변경된 판례의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.</li> </ul> </div> <div> <p><b>I. 쟁점의 정리</b></p> <p>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공동상속인인 경우에 직계비속만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문제된다.</p> <p><b>II. 상속순위</b></p> <p>상속인은 직계비속이 1순위이고, 직계존속이 2순위인데(제1000조 제1항),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, 다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(제1003조 제1항).</p> <p>또한,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(제1000조 제2항).</p> </div> <div> <p><b>III. 일부상속인의 상속포기의 효력</b></p> <p><b>1. 판례의 태도</b></p> <p>변경전 판례는 “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고,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.”고 하였다(2013다48852).</p> <p>최근 변경된 판례는 “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.”고 한다(2020그42).</p> <p><b>2. 검토</b></p> <p>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(제1043조).</p> <p>따라서,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,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제1043조에 따라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, 변경된 판례가 타당하다.</p> <p><b>IV. 사안의 해결</b></p> <p>직계비속인 丙과 丁이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, 변경된 판례에 의하면 X 토지와 B은행에 대한 채무는 배우자인 乙이 단독으로 상속하게 된다.</p> </div>